

“새로운 시도로 특별한 공연 선사”

군산시립예술단 “시민과 함께 한 40년의 여정”... 군산시민 위한 새로운 예술 활기 불어넣어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깊은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며 군산시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으로 자리 잡은 군산시립예술단이 40년의 세월을 딛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깊은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며 군산시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으로 자리 잡은 군산시립예술단이 40년의 세월을 딛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사진은 제115회 정기연주회 모습)

군산시립예술단은 군산시립합창단(지휘자 주광영)과 군산시립교향악단(지휘자 이명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기획 연주회, 광장 콘서트,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색다른 구성으로 관객을 위한 맞춤형 공연을 펼치고 있다. 조화로운 선율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실어 보내는 군산시립합창단은 1983년 창단 후 음악 애호가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색다른 도전으로 노래와 불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지난 14일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56회 정기연주회 ‘3.5만세 운동 구암동’을 개최해 또 한 번 호평을 이끌어냈다.

등 연주곡과 연주 방식을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행복한 음악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군산시민들의 음악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 무대에서 대형을 만들어 노래만으로 승부하던 시대를 넘어 안무 등 예능적 요소를 갖춘 예술단으로 진화해 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연은 관객이 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이끌어내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5만세운동 구암동’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이번 연주회는 호남에서 최초로 일어난 군산 3.5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음악회였다. 또한 음악을 통해 군산 3.5 만세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 발자취와 독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는 호평을 시민들에게 받으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다.

이 밖에도, 군산시립예술단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공연과 작은 음악회, 버스킹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했다.

합창단의 변화와 함께 제9대 삼일지휘자로 취임한 주광영 지휘자의 각오도 대단하다. 그는 “예술적 비전과 교육적 철학을 군산시민들과 공유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펼치며 군산시에 새로운 예술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명근 지휘자는 지난 2022년 제11대 삼일지휘자로 취임하며 “시민들이 즐기기에 익숙하고 편하도록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조화시키는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립예술단은 군산시의 대표적인 예술단체로 오랜 시간 다채로운 연주로 군산시민에게 문화예술을 전달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올해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군산시립예술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광근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학술대회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22~23일 이틀간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인물로 보는 금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재로부터 목조 건축유산 보호한다

전주대 문화재방재연구소, 목조 건축유산 화재안전 대책 연구 기관 선정

이번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22일 1부의 발표 주제는 △眞表의 집합경에 관한 관점과 두 가지 계승(이병욱, 고려대학교) △금산사에서 범주사로, 접합법의 확산과 承深(박미선, 명지대학교) △신라 하대 心池의 진표 계 법상종 계승과 동화사 창건(임병섭, 서강대학교) 등 3건이다. 이어 2부에서는 △금산사와 甄堂(홍창우, 전남대학교) △고려 왕실과 慧德王師 龍顯(1038~1096)(김아네스, 한경대학교) 등 2건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전주대학교 문화재방재연구소는 문화재청의 2024년 기후변화 대응 목조 건축유산 화재안전 처리기술 개발 및 실증화 사업 연구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목조로 이뤄진 건축유산에 대해 재료 및 공간적 위험성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관련 특허 기술을 제품으로 개발한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조범환 회장을 좌장으로 5개 주제의 발표에 대해 신진혜(호남대학교), 백미선(충남대학교), 옥나영(홍익대학교), 진정환(국립인산박물관), 김수연(이화여자대학교)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정은성 기자

이 사업은 화재로부터 목조 건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년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전주대 문화재방재연구소는 2024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화재로부터 목조 건축유산 보호를 위해 문화유산 맞춤형 경량화 방법도 개발, 모듈형 방염포 전개 장치 개발, 안전성 평가, 문화유산 실증 및 법제도 개선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방재연구소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

총괄연구책임자인 문화재방재연구소 김동현 소장은 “2005년 낙산사 화재 시 목조 및 동종 등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유산 보호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특별한 전시회

책으로 그린green 무주 ·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전 개최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군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책으로 그린 무주’전이 김해태문화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2일부터는 최복미술관에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전’을 진행한다.



내년 2월 16일까지 진행할 ‘책으로 그린 green 무주’전은 환경 오염 때문에 빛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을 모든 연령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놓은 전시로, 아름다운 무주의 자연환경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김환태(1909~1944 문화평론가)의 작품을 그림으로 소개한 것과 오세나 작가의 ‘검정토끼(2022 불로냐 일러스트레이터 수상작)’를 원화로 전시한다. ‘검정토끼’는 버려지는 쓰레기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탐장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더욱 알차게, 또 유익하게 누릴 수 있는 전시회”라며 “곧 시작될 불꽃 나들이 겸 무주에 오시면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책과 그림도 꼭 만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또 전시실에서는 다양한 환경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50여 권을 자유롭게 읽어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병두경을 재활용한 불려놀이 등도 체험할 수 있다.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임정희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전”은 창작의 산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6인의 작품을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나운재, 선환두, 양규준, 이운승, 이호영, 최원 작가의 평면 및 입체 미술을 비롯한 사진 작품 28점이 전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시 서예문화 진흥을 위한 ‘제2회 한지에 서예를 담다’ 교육을 시작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에 서예를 담다’ 교육 개강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전주시 서예문화 진흥을 위한 ‘제2회 한지에 서예를 담다’ 교육을 시작했다. 21일 밝혔다.

특히 교육생에게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통한지를 지원, 전주의 문화유산인 한지와 서예의 가치를 체험하고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당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4일까지 모두 4개반 4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초반과 심화반의 수준별 수업을 통해 다양한 한지 서예 기술과 기법을 배우고 실전 연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보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